

20
21

Vol. 02

예능·오락 프로그램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예능·오락
프로그램

04
양적 분석

09
내용 분석

17
나가며

19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능·오락 내용 분석 보고서

이번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http://www.racoi.or.kr>) 내 인터넷 반응 DB 속 시청자버즈(동영상 조회 기준) 상위 20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V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시청자 버즈 상위 20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은 지상파 9개, 종합편성채널 5개, 케이블 6개의 채널에 분포했다.



표1 _____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순위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MBC	나혼자산다	금/23:05
2			라디오스타	수/22:30
3			복면가왕	일/18:20
4			전지적 참견 시점	토/23:10
5		KBS2	신상출시 펀스토랑	금/21:40
6			유희열의 스케치북	금/00:30
7		SBS	런닝맨	일/17:00
8			미운 우리 새끼	일/21:05
9			백종원의 골목식당	수/22:30
10	종합 편성채널	JTBC	아는 형님	토/21:00
11			유명가수전	금/21:00
12		TV조선	내딸하자	금/22:00
13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목/22:00
14			강철부대	화/22:30
15	케이블	Mnet	고등래퍼4	금/23:00
16			킹덤: 레전더리 워	목/19:50
17		tvN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마켓	토/19:40
18			놀면 뭐하니?	토/18:30
19			바퀴 달린 집2	금/20:40
20			유 퀴즈 온 더 블럭	수/20:40

1 _____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http://www.racoi.or.kr>) 내 인터넷 반응 DB 속 시청자버즈(동영상조회 기준) 상위 20개의 예능·오락프로그램 방영분 중 2회분(총 40편)

[양적 분석]

1 출연자 성비

20개의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전체 출연자 성비는 여성 26.3%(124명), 남성 73.7%(346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8배 많이 등장했다.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 효도'를 한다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인 <내말하자>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제외한 18개 프로그램 전부 남성 출연자 성비가 높았다. 특히 <강철부대>와 <킹덤: 레전더리 워>는 각각 여성 출연자보다 29배, 13.8배 더 높은 비율로 남성 출연자가 등장한다. 래퍼,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4>, <킹덤: 레전더리 워>는 남성 출연자 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유일하게 동등한 출연자 성비를 보였다.

표2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단위: 명)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나혼자산다	2	5
2	라디오스타	2	11
3	복면가왕	14	20
4	전지적 참견 시점	14	24
5	신상출시 편스토랑	13	16
6	유희열의 스케치북	8	14
7	런닝맨	5	6
8	미운 우리 새끼	7	11
9	백종원의 골목식당	4	4
10	아는 형님	2	14
11	유명가수전	2	6
12	내말하자	28	13
13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	2	16
14	강철부대	1	29
15	고등래퍼4	8	56
16	킹덤: 레전더리 워	5	69
17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마켓	3	11
18	놀면 뭐하니?	0	6
19	바퀴 달린 집2	2	5
20	유 퀴즈 온 더 블럭	2	10
합계		124(26.3%)	346(73.7%)
		470(100%)	

2020년을 기점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선정기준 데이터 출처를 변경하여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², 최근 6년 간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출연자가 등장했던 해는 한 해도 없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8배의 차이로 남성 출연자의 프로그램 출연 및 방송 노출 빈도가 높았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최근 6년 중 남성 출연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의 성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최근 6년간 예능·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성비 (단위: 명)

연도	월	여성	남성	합계(명)
2016년	8월	181(39.3%)	280(60.7%)	461
	9월	148(33.7%)	291(66.3%)	439
2017년	3월	180(38.5%)	287(61.5%)	467
	7월	159(38.7%)	252(61.3%)	411
2018년	3월	140(35.4%)	256(64.6%)	393
	7월	149(36.8%)	256(63.2%)	405
2019년	3월	250(42.1%)	344(57.9%)	594
	8월	105(29.5%)	251(70.5%)	356
2020년	6월	140(35.9%)	250(64.1%)	390
2021년	4월	124(26.3%)	346(73.7%)	470
평균		158(36%)	281(64%)	439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전체 출연자 연령대는 30대(30.6%)가 가장 많았고, 20대(22.8%)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높았다. 10대의 경우 <고등래퍼4>에 남성 래퍼들이 다수 등장하며 남성 출연자들이 6.4배 더 많이 출연했다. 40대는 4.2배, 50대는 3.6배 더 높은 남성 출연자 비율을 보였다.

10대 미만에서 50대까지는 남성 출연자 비율이 높으나 60-70대는 여성 출연자가 더 많이 등장한다. 60-70대의 여성 출연자들은 <골목식당>의 자영업자나 <미운 우리 새끼>의 어머니 패럴에 집중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남편이나 자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 경영자의 한 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사적 관계인 가족 내에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자격으로 등장하고 있다. 60-70대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시)어머니나, 오랜 살림으로 살림 전문가의 역량을 갖춘 여성으로서 등장하는 경향이 높음을 반영한다. <미운 우리 새끼>가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등장하는

2. 2019년까지는 닐슨코리아 제공의 상위 시청률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에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기준으로 상위 시청률의 프로그램을 선정

패널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역할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의 자격으로 등장한다. 사적 영역의 맥락에서 출연의 기회가 주어지는 여성과 비교해 남성은 공적 영역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으로 폭넓게 등장한다. 남성은 공적 영역의 활동 연령대인 60대 이전의 연령을 정점으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출연빈도가 분포되어 있다.

표4 _____ 전체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인원	3 (0.6%)	45 (9.6%)	107 (22.8%)	144 (30.7%)	98 (20.8%)	41 (8.7%)	19 (4.1%)	8 (1.7%)	5 (1%)	470 (100%)
여성 (%)	1 (0.2%)	6 (1.3%)	24 (5.1%)	44 (9.4%)	19 (4%)	9 (1.9%)	12 (2.6%)	6 (1.3%)	3 (0.6%)	124 (26.4%)
남성 (%)	2 (0.4%)	39 (8.3%)	83 (17.7%)	100 (21.3%)	79 (16.8%)	32 (6.8%)	7 (1.5%)	2 (0.4%)	2 (0.4%)	346 (73.6%)

3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은 크게 진행자와 출연자로 나눈 후, 역할 비중에 따라 주진행자/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보조출연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스튜디오 예능의 경우 주 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관찰 예능의 경우 진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찰 예능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시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 모두를 주도적인 역할로 간주했다. 역할 구분을 살펴보면 주 진행자는 여성이 7명이었던 반면 남성은 그 5.3배에 해당하는 37명에 달했다. 고정출연자로 는 여성이 17.4%(21명), 남성이 82.6%(100명) 등장했다. 주진행자와 고정출연자가 예능을 이끄는 진행자의 위치임을 고려할 때, 2021년 4월 한국 예능에서는 여전히 남성 출연자들의 등장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_____ 전체 출연자 성별 역할 (단위:명)

	주 진행자	보조진행자	고정출연자	보조출연자/ 초대손님	스태프	기타	합계
전체 인원	44 (100%)	17 (100%)	121 (100%)	209 (100%)	4 (100%)	75 (100%)	470 (100%)
여성	7 (16%)	4 (23.5%)	21 (17.4%)	75 (35.9%)	2 (50%)	15 (20%)	124 (26.4%)
남성	37 (84%)	13 (76.5%)	100 (82.6%)	134 (64.1%)	2 (50%)	60 (80%)	346 (73.6%)

4 역할에 따른 성별 연령대

역할과 성별 연령대를 함께 비교했을 때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 30-50대 남성이 주진행자를 맡는 경우가 81.8%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30-50대의 보조 진행자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고정된 역할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주진행자가 출연자와의 대화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한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과 맞물려 단순한 성비 불균형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진행자가 남성일 경우 남성의 관점에서 익숙한 질문들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6 _____ 역할별 연령대* (단위:명)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연령대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20대 이하	30-50대		60대 이상
역할	주진행자	1 (2.3%)	6 (13.6%)	0 (0.0%)	1 (2.3%)	36 (81.8%)	0 (0.0%)	44 (100%)
	보조진행자	0	4 (23.5%)	0 (0.0%)	0	12 (70.6%)	1 (5.9%)	17 (100%)
	고정 출연자	1 (0.8%)	17 (14.1%)	3 (2.5%)	54 (44.6%)	46 (38%)	0 (0.0%)	121 (100%)
	보조출연자/ 초대손님	17 (8.1%)	43 (20.6%)	15 (7.2%)	36 (17.2%)	91 (43.5%)	7 (3.4%)	209 (100%)

5 성별 직업군

전체 출연자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총 18개의 직업군('기타' 포함, '모름' 불포함)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수(223명, 47.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 중 남성 가수는 179명으로 80.3%, 여성 가수는 44명으로 19.7%가 출연해 불균형한 성비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요리사와 운동선수의 경우 남성 요리사가 6명, 운동 선수가 8명 등장한 반면, 동종 직업의 여성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특정 직업군의 성비 불균형이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 _____ 연령 '모름'으로 표시된 여성 3명, 남성 2명 제외

표7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명)

직업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3	14	15	16	19	20	21	22	99	계
여성	13	17	44	2	4	0	0	0	1	0	1	0	0	4	3	6	0	14	15	124
남성	29	31	179	1	17	1	1	1	0	6	0	1	8	8	1	12	1	15	34	346
계	42	48	223	3	21	1	1	1	1	6	1	1	8	12	4	18	1	29	49	470

※직업분류번호

-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운동선수
 ⑯ 학생 ⑰ 일반 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무직 ㉒ 모름 기타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에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성평등적 내용은 2건, 성차별적 내용은 40건을 발견했다. 성차별적인 내용 40건 중 젠더(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사례가 가장 많았고(19건, 47.5%), 외모에 대한 평가(13건, 32.5%)의 내용이 뒤를 이었다.

표8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2019년 8월	2020년 6월	2021년 4월		2019년 8월	2020년 6월	2021년 4월
성평등적 내용	5	3	2	젠더(성별) 고정관념 조장	10 (28.5%)	15 (57.7%)	19 (47.5%)
				성적 괴롭힘·성폭력 정당화	0 (0.0%)	2 (7.7%)	3 (7.5%)
				외모에 대한 평가	21 (60%)	5 (19.2%)	13 (32.5%)
				성적 대상화	1 (3%)	0 (0.0%)	0 (0.0%)
				기타	3 (8.5%)	4 (15.4%)	6 (15%)
합계	5	3	2	합계	35	26	41

※연도별 모니터링 시기와 대상 프로그램 상이함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이번 보고서에는 전통조리학과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를 담은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성평등한 사례로 실었다. 해당 편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고정관념에 맞서며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쌓아나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남성의 영역에서 성공한 소수 여성의 이야기는 분명 여성의 성공 스토리이며 많은 여성들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여성이 성공하기까지 감수한 어려움을 젠더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지점 또한 존재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04/21(103회)	짧은 머리에 오토바이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전통조리학과 교수는 유 퀴즈 <이중생활> 편에 출연해, 교수와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는 이중생활이 중년 여성들에게 큰 대리만족을 주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 이 외에도 그는 오랫동안 가사노동(요리, 청소, 육아)을 도맡아 왔지만, 요리를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전통조리학과 교수로 강단에서 기 전, 스승조차도 “주방에 (동료)여자가 없으니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그 주방에서 무려 8년을 버텼다는 그의 인생사는 그 자체로 많은 여성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 교수가 주방에서 겪었을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없이 “성공”만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 최초’, ‘여성 1호’, 남성의 분야에서 성공한 ‘걸크러시 스토리’가 갖는 통쾌한 성공담을 넘어 ‘나는 참아서 성공했지만 내가 겪었던 일들이 되풀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2 성차별적 내용

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인간을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수용하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이 가진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유머는 공감을 전제로 구성된다. 젠더 고정관념에 기반한 말과 상황설정이 '유머'로 소비되고 있는 것은, 젠더 고정관념이 일부 시민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MC의 성인지 관점에 따라 성차별 상황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운 우리 새끼>를 예로 보면, 패널로 등장한 남성 연예인 어머니가 액션 연기를 즐긴다는 여성 배우를 특이하게 보는 성차별적 발언이 등장한다. 남성 MC들은 이 발언을 수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 배우의 외모를 평가하며(18쪽) 여성 액션 배우로서의 특별함을 외모 평가라는 성차별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으로 풀어낸다. 이러한 장면은 30-50대 남성이 주진행자를 맡는 비율이 높은 예능 방송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성인지 관점을 가진 MC라면 어머니의 발언에 대해 액션배우로서 여성 배우의 자질이나 가치를 언급하며 대화를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진행자의 성인지 관점 향상 및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 분포가 요청된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TV조선	사랑의 콜센타 04/15(51화)	한 남성 가수가 다른 가수들과 달리 발라드나 트로트가 아닌 거친 사운드의 록을 부르는 장면에 '남성미'라는 표현이 세 차례 등장한다. 거칠고 강렬한 것이 곧 '남성'적인 것이라는 젠더 고정관념을 강조한다.





채널	회사/광고제품명	분석
SBS	런닝맨 04/18(551화)	남성 출연자 ○○○이 다른 출연진과 악수 할 때 손을 꼭 잡으며 "초면이니까, 남자끼리 만났으니까"라고 말하며 힘을 과시한다. 이는 남성끼리는 힘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





레이스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온 남성 출연자에게 다른 출연자들은, "남자분이 왜 여자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여성 1호분이 처음에 잘못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레이스를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다가는 조만간 원피스도 입으시겠어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유도한다. 이는 레이스가 달린 옷은 여성만 입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기반한 발언이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SBS	런닝맨 4/18(551화)	 <p>남성 출연진이 함께 식사를 할 여성 출연진을 고르는 장면에서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에게 “상남자답게 바로 이쪽으로 올 거예요?”라고 묻는다. 자막에는 ‘칭찬’이라는 단어가 함께 기재되었다. 이어 동의를 표하는 남성 출연자의 행동에 “상남자 접수”라는 자막이 뜬다. 선택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직진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태도를 ‘상남자’라고 칭하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담긴 발언이다.</p>  <p>남성 출연자들이 힘을 겨루는 미션에서 힘을 쓰지 못하자 ‘여성분들 눈앞에서 개망신 중’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남성이 힘이 약한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젠더 고정관념이 담긴 발언이다.</p> 

②
외모에 대한 평가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예쁘다’ ‘잘 생겼다’ ‘못 생겼다’는 외모평가가 발언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사람의 외모는 각기 고유한 것으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회적 미의 기준으로 존재를 평가하는 경향이 사회 뿐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

미디어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외모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여 서열이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도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외모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외모 평가는 여성을 능력이나 다양한 요소가 아닌 오직 ‘아름다운 외모’라는 제한적인 가치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여성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방해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SBS	미운우리새끼 04/18(238화)	<p>“얼굴 예쁘고, 몸매 예쁘고, 운동도 잘하고, 무술도 잘한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쁘단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디 예쁘다는 얘기가 제일 기분 좋은지.” “언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다고 느낀 적 있는지.”</p> <p>남성MC가 외모평가가 담긴 질문을 반복하고, 여성 패널들도 이에 동의하며 관련 발언이 더해지는 자막이 연출된다. 칭찬의 형태를 띠었으나, 결국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이다. 출연자의 직업은 배우지만 연기력이 아닌 외모와 관련된 질문과 대답으로만 대화가 진행되고,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 모두 외모를 칭송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p>   
JTBC	아는형님 04/17(276회)	<p>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자신이 속했던 공중파 방송사가 선호하는 아나운서 외모상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한 공영방송사의 경우 ‘다양한 외모를 뽑는다’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얼굴상을 매우 희화화해서 표현한다.</p> <p>아나운서는 외모가 아니라 정확한 전달력과 전문성을 겸비해</p>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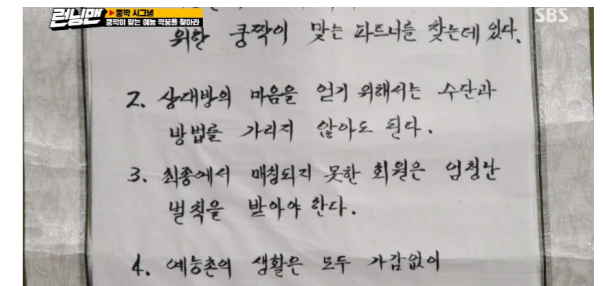
뉴스를 전달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채용 시 적용되는 특정 외모 기준'을 마치 채용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방송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아나운서라는 직업 외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성적 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성범죄, 교제 폭력을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 발견되었다. 이는 프로그램 속 짝짓기 상황 연출을 위한 행동강령 속에서 보여졌다.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짝짓기 설정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행동 강령이 등장한다. 교제폭력,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적 괴롭힘, 성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문제의식 없이 사용될 때,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SBS	런닝맨 04/18(551회)	런닝맨 551회는 '쿵짝 시그널 예능촌' 특집으로, 이성 간 연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짝'을 패러디한다. 예능촌 강령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교제폭력과 스토킹범죄, 교제살인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애 관계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교제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희석할 수 있다.



④ 이성에 가족 주의 강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성별과 관계 없이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선후배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 출연자는 빈번히 연인관계로 설정되곤 한다.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 공공재인 지상파나 종편, 케이블 프로그램은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규범이자 가치인 이성에 가족주의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불필요한 상황에서조차 이성을 사회의 기본 규범으로 강조해 재현할 때,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규범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이성애적 관점의 '여성성' '남성성' 규범에 벗어나는 상태를 비정상적으로 여김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MBC	복면가왕 04/25(304회)	본 프로그램의 두 남녀 출연자가 녹화 도중 쉬는 시간에 서로 앨범을 교환하며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것을 두고, 다른 출연자들이 이들을 '연인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연출은 여성과 남성의 친밀한 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압축시키며, 관계의 다양성을 배제해버린다.

방송사

프로그램명 / 방송일(회차)

분석



[나가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번 예능·오락 프로그램 보고서 양적 분석 결과, 20개의 예능·오락 프로그램 중 단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나마 여성 출연자 비중이 유일하게 높았던 <내딸하자>는 “노래 효도”라는 콘셉트로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다. 남성 출연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여성이 예능·오락 장르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사적 관계의 맥락에서 출연의 기회가 주어지는 여성과 비교해 남성의 경우는 전체 연령대에 걸쳐 ‘개인’의 자격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누구의 남편이나 아들, 아버지가 아니라 직업인, 학생, 아이돌 연습생, 예능인 등 직업군 전반에 걸쳐 공적인 영역 안에서 ‘개인 아무개’로 출연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개인’의 존재로 등장하는 여성에게 출연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또한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남성은 주진행자, 보조출연자, 전문가 등의 역할로 등장하는 반면, 여성은 보조진행자, 보조출연자 등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여성의 미디어 노출, 발화 기회 등을 축소하는 현상을 낳는다. 여성과 남성,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균형있게 출연하고, 동등한 역할을 맡는 것은 성평등한 방송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내용분석 결과 드러난 성차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에 따른 규범이나 선호도가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예컨대, 화장대를 좋아하는 것, 레이스 달린 옷을 입는 것이 성별과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여성은 화장, 화장대를 좋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나 남성은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으면 어색하다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방송하고 있었다.

둘째, 칭찬과 경계가 모호한 외모 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예쁘다’ ‘잘 생겼다’ ‘못 생겼다’와 같은 외모평가 발언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사람의 외모는 자기 고유한 것으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회적 미의 기준으로 존재를 평가하는 경향이 사회 뿐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 미디어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외모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여 서열이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도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외모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외모 평가는 여성을 능력이나 다양한 요소가 아닌 오직 ‘아름다운 외모’라는 제한적인 가치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여성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방해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장면을 계속해서 송출하는 것은 성적 괴롭힘, 성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만들고, 가벼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성별과 관계 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나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 출연자는 빈번히 연인관계로 설정되곤 한다.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 공공재인 지상파나 종편 방송은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규범이자 가치인 이성에 가족주의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성을 사회의 기본 규범으로 삼고, 불필요한 상황에서조차 이를 강조해 재현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규범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비정상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성애적 관점의 ‘여성성’, ‘남성성’의 규범이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성애를 강조하는 구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0건의 성차별적 사례에 비해 성평등적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 중 하나는 전통조리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담은 <유 퀴즈 온 더 블록>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고정관념에 맞서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쌓아나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이다. 다만, 해당 사례는 남성의 영역에서 성공한 소수 여성의 이야기로, 한 여성이 성공하기까지 감수한 어려움을 제

한적으로 담아냈다는 아쉬움이 있다.

많은 시청자들은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보며 웃고 휴식한다. ‘웃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감대 속에서 나타나는 의외의 순간에서 터져 나온다. 누구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예능·오락프로그램을 위해 시민들이 가진 공감대와 웃음 포인트에 성차별적인 인식이 있지 않은지, 특정 존재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담겨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예능·오락 프로그램

1. 모니터 요원 :

2. 채널 :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MBN ⑦ 채널A ⑧ TV조선 ⑨ tvN
⑩ MBCevery1

3. 방영시간대 :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4:00-16:00 ⑥ 16:00-18:00 ⑦ 18:00-20:00 ⑧ 20:00-22:00
⑨ 22:00-24:00 ⑩ 24:00-06:00

4. 출연자 성비 분석(단위 : 명) *프로그램에 등장한 모든 출연자

구분	인원수
4-1. 전체	
4-2. 여성	
4-3. 남성	

5. 출연자 분석 *프로그램에 등장한 모든 출연자

5-1. 이름	
5-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5-3.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5-4.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대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㉔ 기타____
5-5. 역할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고정 출연자 ④ 보조 출연자/초대손님 ⑤ 기타

6.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7.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회차)	내용 및 이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성평등적 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 남성중심적 성규범(강간 통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2.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 가정폭력, 성적 괴롭힘,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적 괴롭힘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가정폭력, 성적 괴롭힘,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하고 있는가?

3.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4.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5. 기타

-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00녀와 같은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홍지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2)

예능·오락 프로그램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